

교구 예배 교안 2025.02.02

예배의 선언	목상기도하심으로 교구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 지니라” 예배를 위한 간단한 기도
신앙고백	사도신경
찬양	뒷면 참조
합심기도	예배를 위하여, 성령의 역사하심을 위하여
대표기도	담당자
성경봉독	담당자 로마서 13장 1~7절
말씀	교구장 [국가의 권세에 대한 성도의 자세]
나눔 질문	1) 우리나라가 정의롭고 평화롭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것의 중요성을 나누어 봅시다. 2) 나라가 정치적 혼란과 경제적 어려움 가운데 있는 지금 성도의 바른 자세는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오늘 말씀과 연결해서 나누어 봅시다. 3) 말씀을 듣고 새롭게 깨달은 것과 결단한 것을 나누어 봅시다.
합심기도	각 가정의 기도 제목 나누기 1. 교회를 위하여 - 원로목사님과 담임 목사님, 교역자들, 교회 사역과 여러 행사들을 위해 2. 긴급한 기도제목들을 위하여 3. 각 가정과 개인의 문제 해결을 위하여 기도 (질병, 자녀들 진로, 취업, 관계 회복, 경제적 문제 해결 등) 4. 교구장이 축복하며 마무리 기도
공지사항	교구장
주기도문	다같이
교제	다같이

국가의 권세에 대한 성도의 자세 / 롬13:1-7

성도는 세상에서 두 가지의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 나라 백성으로서의 신분이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신분입니다. 즉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의 신분을 가지지만 동시에 천국 백성으로서의 신분도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가 보수와 진보가 대립하면서 매우 어렵습니다. 이럴 때 성도인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울은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로마의 권세에 복종할 것을 명하면서 그 이유를 로마 당국의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증거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1절에서 증거하는 “권세들”은 여성 복수 형태를 띠고 있어 권력자들이 아닌 국가통치기관들로 이해됩니다. 마틴 루터도 본문의 “권세들”을 “권력을 가지고 있는 정부”로 이해하였습니다. 즉 한 나라를 다스리는 정부 기관들의 권세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국가의 권세를 인정하고 복종하는 것은 그 권세를 주신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는 결코 무정부상태를 원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나라가 정부의 권세를 통해 질서가 있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국가의 위정자들을 “하나님의 사역자”로 표현하면서 그들을 백성에게 선을 베푸는 자로 증거합니다. 즉 위정자들은 나라의 질서와 백성의 행복을 위해 헌신하는 자들로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국민으로서 국가의 권세에 순응하여 법을 성실히 지키는 사람은 국가의 권세를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국가 권세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교회 성도들이 구체적으로 로마 당국의 권세에 복종하는 한 실례로 납세의 의무를 증거합니다. 물론 오늘날 국민으로서의 우리의 의무는 납세에만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방의 의무, 교육의 의무, 근로의 의무, 환경보전의 의무, 재산권 행사의 공공복리 적합성의 의무도 있습니다. 도로 교통법규도 우리는 잘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국민의 의무를 다할 때 국가의 질서가 유지되고 우리의 안녕과 행복도 증진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부딪치는 몇 가지 문제에 대해 숙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국가의 권세가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일을 강요할 때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합니까? 그때도 국가의 권세에 복종해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부패한 선출 공직자들과 국회의원들의 경우는 일차적으로 사법당국이 엄정한 판단을 할 것입니다. 만일 그런 정의가 실현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국민이 선거를 통해서 부패한 위정자들을 심판해야 할 것입니다. 또 정부나 국회가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입법을 하려 할 때는 악법을 거부하고 바른 법의 개정을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성도에게 있어 상위법은 국가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국가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는 이때 성도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법이 허락한 범위 안에서 자기 정치적 입장을 피력해야 합니다. 폭력은 절대 안 됩니다. 모든 것을 평화롭고 합법적으로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국가기관들이 국민을 위하여 바른 권세를 행사하고 국민은 그 권세에 자발적으로 순복함으로 우리나라가 질서 있고 부강한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경배와 찬양

586

어느 민족 누구게나

(통 521)

J. R. Lowell, 1845

너희가 심긴 자를 오는 택하라
(수 24:15)

TON-Y- BOTEL: 8.7.8.7.D.
T. J. Williams, 1890

조금 느리게

1. 어느 민족 누구게나 결단 할 때 있 나니
 2. 고상 하고 아 름답 다 진리 에 서 는 일
 3. 순교 자의 빛 성 따 라 주 의 뒤 를 좇 아 서
 4. 악 이 비 록 하 여 도 진 리 더 욱 강 하 다

참 과 거 짓 싸 울 때 에 어느 편 에 설 건 가 도
 진 리 위 해 를 등 아 지 고 명 예 이 잃 어 도
 진 리 따 라 살 아 갈 때 어 려 움 도 당 하 리

주 가 주 신 새 목 표 가 우 리 앞 에 보 이 니
 비 겁 한 자 새 물 러 사 나 용 감 한 자 세 계 니
 새 시 대 는 새 사 명 을 우 리 에 게 주 나 니
 우 리 가 는 그 앞 길 에 어 둔 장 막 처 도

빛 과 어 들 사 이 에 서 선택 하 며 살 리 라
 낙 심 한 자 들 아 오 는 그 날 까 지 서 리 라
 진 리 따 라 사 는 자 는 전 진 하 리 언 제 나
 하나 님 이 함 께 계 셔 향 상 지 켜 주 시 리 아 멘

위운 기타코드(Capo=1st): Fm → Em C → B Db → C Bbm → Am Ab → G Eb → D F → E
 Once to every man and nation
 종교개혁기념일

경배와 찬양

나의 백성이

(원제 : 이 땅 고치소서)

올네이션스 역

Tom & Robin Brooks

1.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
 2. 무릎 꿇고 다 겸비하여 주께 기도하리 -

나의 열 줄을 구하여서 그 악한 것 떠나면
 주의 열 줄을 구하여서 그 악한 것 떠나리

하늘에서 들 - 고 죄 를 사 하 며
 주님의 자비 - 로

그 - 들 의 땅 - 을 고 치 리 - 라
 주님의 자비 - 로 영 하 소 - 서

아 버 지 여 - 고 쳐 주 소 서 -

이 나 라 주 의 것 되 게 하 소 - 서

주 하 나 님 간절히 기도 하 오 니 -

상 한 이 땅 새 롭 게 하 소 - 서

<http://blog.daum.net/dw7055>

Copyright (C) 1988 Integrity's Hosanna! Music. Adm. By CopyCare Korea. Used by Permission.

구역 모임 교안 2025.02.02

1. 아이스 브레이크	<p>*눈치게임: 모인 사람의 숫자만큼(예:5명이 모였으면 4번까지) 서로 눈치를 보면서 일어나거나 번호를 외치며 손뼉을 치는 게임입니다.</p> <p>*별칭 해당자: 마지막까지 번호를 외치지 못하거나 일어나지 못한 사람, 동시에 같이 외치거나 함께 일어나는 사람</p>
2.찬양과 경배	<p>뒷면의 찬양 또는 준비해 온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 시간 성령님의 크신 임재를 기대하며 찬양합니다.</p>
3.기도 (통성으로)	<p>다함께 구역예배와 모임을 위해,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위해 통성으로 기도하고 인도가 마무리 기도를 드립니다. (2번 찬양과 경배와 3번 기도는 연결하여 진행)</p>
4.은혜의 나눔	<p>한 주 동안 은혜 받은 내용이나 응답받은 기도제목에 대해서 구역 식구들 앞에서 함께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p>
5.말씀의 나눔	<p>본문: 로마서 13장 1-7절 제목: 국가의 권세에 대한 성도의 자세</p>
6.질문과 나눔	<p>1) 우리나라가 정의롭고 평화롭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것의 중요성을 나누어 봅시다.</p> <p>2) 나라가 정치적 혼란과 경제적 어려움 가운데 있는 지금 성도의 바른 자세는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오늘 말씀과 연결해서 나누어 봅시다.</p> <p>3) 말씀을 듣고 새롭게 깨달은 것과 결단한 것을 나누어 봅시다.</p>
7.증거	<p>1) 각 태신자와의 관계맺기 현황과 기도제목 나눔.</p> <p>2) 전도 대상자를 생각나게 하시며, 만나게 하시고, 전도가 되도록 기도.</p> <p>3) 구역 결석자, 구역모임 결석자에 대한 관심과 기도.</p>
8.치유와 회복의 시간	<p>1) 각자의 긴급하거나 중요한 기도제목을 나눕니다.</p> <p>2) 치유집중기도: 치유를 위한 집중 기도가 필요한 분이 있으면 먼저 그를 위해 다함께 기도</p> <p>3) 문제를 맡기며 : 서로 나눔 기도제목을 가지고 서로를 위해 중보기도</p> <p>4) 올 한해 믿음으로 성장하고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기도</p> <p>5) 교회와 두 분의 원로 목사님과 담임목사님을 위한 기도</p> <p>6) 구역의 활성화를 위해</p> <p>7) 리더가 축복하며 마무리기도</p>
9.광고 및 주기도문	

국가의 권세에 대한 성도의 자세 / 롬13:1-7

성도는 세상에서 두 가지의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 나라 백성으로서의 신분이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의 신분입니다. 즉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의 신분을 가지지만 동시에 천국 백성으로서의 신분도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가 보수와 진보가 대립하면서 매우 어렵습니다. 이럴 때 성도인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울은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로마의 권세에 복종할 것을 명하면서 그 이유를 로마 당국의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증거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1절에서 증거하는 “권세들”은 여성 복수 형태를 띠고 있어 권력자들이 아닌 국가통치기관들로 이해됩니다. 마틴 루터도 본문의 “권세들”을 “권력을 가지고 있는 정부”로 이해하였습니다. 즉 한 나라를 다스리는 정부 기관들의 권세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국가의 권세를 인정하고 복종하는 것은 그 권세를 주신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는 결코 무정부상태를 원하시지 아니하시고 모든 나라가 정부의 권세를 통해 질서가 있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국가의 위정자들을 “하나님의 사역자”로 표현하면서 그들을 백성에게 선을 베푸는 자로 증거합니다. 즉 위정자들은 나라의 질서와 백성의 행복을 위해 헌신하는 자들로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국민으로서 국가의 권세에 순응하여 법을 성실히 지키는 사람은 국가의 권세를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국가 권세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교회 성도들이 구체적으로 로마 당국의 권세에 복종하는 한 실례로 납세의 의무를 증거합니다. 물론 오늘날 국민으로서의 우리의 의무는 납세에만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방의 의무, 교육의 의무, 근로의 의무, 환경보전의 의무, 재산권 행사의 공공복리 적합성의 의무도 있습니다. 도로 교통법규도 우리는 잘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국민의 의무를 다할 때 국가의 질서가 유지되고 우리의 안녕과 행복도 증진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부딪치는 몇 가지 문제에 대해 숙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국가의 권세가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일을 강요할 때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합니까? 그때도 국가의 권세에 복종해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부패한 선출 공직자들과 국회의원들의 경우는 일차적으로 사법당국이 엄정한 판단을 할 것입니다. 만일 그런 정의가 실현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국민이 선거를 통해서 부패한 위정자들을 심판해야 할 것입니다. 또 정부나 국가가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입법을 하려 할 때는 악법을 거부하고 바른 법의 개정을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성도에게 있어 상위법은 국가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국가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는 이때 성도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법이 허락한 범위 안에서 자기 정치적 입장을 피력해야 합니다. 폭력은 절대 안 됩니다. 모든 것을 평화롭고 합법적으로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국가기관들이 국민을 위하여 바른 권세를 행사하고 국민은 그 권세에 자발적으로 순복함으로 우리나라가 질서 있고 부강한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경배와 찬양

586

어느 민족 누구게나

(통 521)

J. R. Lowell, 1845

너희가 심긴 자를 오는 때까지
(수 24:15)

TON-Y- BOTEL: 8.7.8.7.D.
T. J. Williams, 1890

조금 느리게

1. 어느 민족 누구게나 결단 할 때 있 나니
2. 고상 하고 아 름답 다 진리 에 서 는 일
3. 순교 자의 빛 성 따 라 주 의 뒤 를 좇 아 서
4. 악이 비 록 하 여 도 진 리 더 욱 강 아 하 다

참 과 거짓 싸 울 때 에 어느 편 에 설 건 가 도
진 리 위 해 를 등 아 지 고 명 예 이 잃 어 도
진 리 따 라 살 아 갈 때 어 려 움 도 당 리 라
하 리

주 가 주 신 새 목 표 가 우 리 앞 에 보 이 니
비 겁 한 자 물 러 사 서 나 용 감 한 자 곧 세 계 니
새 시 대 는 새 사 명 을 우 리 에 게 주 나 니
우 리 가 는 그 앞 길 에 어 든 장 막 처 처 도

빛 과 어둠 사 이 에 서 선택 하 며 살 리 라
낙심 한 자 들 아 오 는 그 날 까 지 서 리 라
진 리 따 라 사 는 자 는 전 진 하 리 언 제 나
하나 님 이 함 께 계 셔 향 상 지 켜 주 시 리 아 멘

위운 기타코드(Capo=1st): Fm → Em C → B Db → C Bbm → Am Ab → G Eb → D F → E
Once to every man and nation 종교개혁기념일

경배와 찬양

나의 백성이

(원제 : 이 땅 고치소서)

올네이션스 역

Tom & Robin Brooks

1.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 하며 -
2. 무릎 꿇고 다 겸비하여 주께 기도 하 리 -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것 떠나 면
주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것 떠나 리

하늘에서 들 - 고 죄 를 사 하 며
주님의 자비 - 로

그 - 들 의 땅 - 을 고 치 리 - 라
주님의 자비 - 로 영 하 소 - 서

아 버 지 여 - 고 처 주 소 서 -

이 나 라 주 의 것 되 게 하 소 - 서

주 하 나 님 간절히 기도 하 오 니 -

상 한 이 땅 새 롭 게 하 소 - 서

<http://blog.daum.net/dw7055>

Copyright (C) 1988 Integrity's Hosanna! Music. Adm. By CopyCare Korea. Used by Permission.